==========

17/03/26(주) 주일예배 / 제목 :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일(빌 2:5~11) p.320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여러분은 교회력(敎會曆)이나 교회 절기(敎會 節氣)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력이 뭐야? 교회 절기는 또 뭐야?" 하고 반응합니다. 그만큼 교회력이나 절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부활절이나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은 알지만 그 밖의 절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과 교회 절기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력'이란 한마디로 "교회에서 지키는 달력"입니다. 영어로도 'church calendar'라고 하지요. '교회 절기'(church holiday)는 "계절마다 찾아오는 교회의 중요한 기념일들"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절기로는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대림절,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교회력과 절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달력과 절기에 의해 교회의 예배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성도들도 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일을 합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무겁고 어둡지요. 절기에 따른 색깔도 있는데 사순절의 절기 색은 보라색입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분위기가 밝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 중에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순절(四旬節 / Lent)이란 한자로는 넉 사(四) 열흘 순(旬) 즉 네 개의 열흘, 사십일 동안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Lent라고 하고요.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재의 수요일', 재 옷을 입고 회개하는 날이라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데 '성회'로 모여 회개하는 날이라고 해서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부르는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과 특별기도,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선 하

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은 웃고 떠들고 즐기는 일, 요란한 잔치 같은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예 이 사순절 기간에는 결혼식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완화되어서 고난주간을 제외하고는 결혼식을 허락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사순절에는 결혼식이나 떠들썩한 잔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 부득이한 경우라면 최소한 고난주간 한 주 동안만은 결혼식이나 잔치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순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말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 이런 절기나 규정들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신앙생활이 편하고 쉬운 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편한 쪽으로만 가게 되면 절실함이나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본론 / 사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1. 기도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40일동안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 그마만큼 예수님은 필사적인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의 열기가 후끈 거리는 교회가 있는가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생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특별히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욱 기도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반드시 실행해야만 되는 삶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못하지만 잘하도록 돕는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고 무슨 일이나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 더 쉬지 말고 기도해야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반면에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뜻하지 않게 좋은 생각이 나고 추진력이 생깁니다. 또한 기도하면 반성의 마음이 일어나고, 관용하게 되고, 원한의 마음도 없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삼상 12:23).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당시의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

을 받기 위하여 더욱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여러 시간을 기도하는데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일 보다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도에게 있어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놀라운 축복을 소홀히 여기면 안됩니다. 즉 쉬지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1. 기도입니다.

2. 성경 묵상입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야 하고 신약성경에서는 사복음서 후반부를 읽으셔야 합니다. 사복음서 후반부를 보면 모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성경을 가장 많이 묵상하여야 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교훈의 3분의 2가 사순절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긴 예수님의 고별설교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순절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뜻을 기리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묵상을 통하여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다면 생살을 찢어야 하는 아픔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까지도 마취제가 없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취약은 지금부터 170년 전인 제임스 심프슨(James Simpson. 1811~1870)이 발견하였습니다. 심프슨은 영국 스코트란드에서 빵굽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 산부인과 의사 과정을 밟아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며 치료하여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읽을 때였습니다. (창 2:21~23)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셨다면 엄청난 대 수술이다. 그런데 아담이 아파하였다는 말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프지 않게 갈비뼈를 빼내실 수 있었을까?” 이 사실에 심프슨은 감탄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프슨은 하나님께 그 비결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취제 개발 연구에 몰입하였습니다. 드디어 1847년 11월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로포름’ 이라는 마취약을 발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약은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 사용하여 온 세계에 떠들석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의사로서는 최고의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참으

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묵상하면 진리가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1. 기도입니다. 2. 성경 묵상입니다.

3. 금식입니다.

사순절에는 그동안 금식하지 못하였던 이들도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0일을 온전히 금식하지 못하면 아침 금식만이라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사순절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만 아침 금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일주일에 한끼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능력있는 기도는 금식기도입니다. 이사야는 금식기도의 능력을 이사야 58장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사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금식해야 하느냐 하면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멍에에 묶여 있는 자가 있을 때 그 멍에의 줄을 끌러 주기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압제 당하는 자가 있을 때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하고, 또 모든 멍에를 꺾기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의 원인이 되는 배경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에 하루만 금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 속죄일이라고 하는 금식일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금식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이 생기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금식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자기 형편에 맞게 금식을 정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1. 기도입니다. 2. 성경 묵상입니다. 3. 금식입니다.

4. 회개입니다.

사순절의 최고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진하게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J. J. 루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의 말씀에 벗어나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면 단순히 후회하고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悔改)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 자와 고칠 '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후회'하면서 동시에 돌이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회'(悔)입니다. 회개는 '개'(改)까지 해야 됩니다. 회개란 180도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인격적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격의 3요소는 지, 정, 의 3가지입니다. 먼저 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난 후에는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철저히 통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고, 행동의 변화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 통회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1. 기도입니다. 2. 성경 묵상입니다. 3. 금식입니다. 4. 회개입니다.

5. 절제입니다.

사순절은 절제를 배우는 절기입니다. 본래 사순절을 지킬 때에는 40일간 저녁 한 끼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기나 육류 그리고 가공식품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생식만 하였습니다. 이를 콜레이션(Collation)이라고 하는 데 아주 가벼운 식사입니다. 그런데 9세기 후부터 이런 절제의 규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TV를 봐도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은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지나치게 화려한 곳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외설적인 잡지를 본다거나 음담패설 같은 언행도 삼가야 합니다. 이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무엇이나 절제하여야 합니다. 사순절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빌 2:5~11)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번 변신하신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단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신한 것이고, 2단계는 사람이 종으로 변신한 것이며, 3단계는 종이 사형수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꼭 하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 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묵상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네 번째는 회개입니다. 다섯 번째는 절제입니다. 이번 일들로 인하여 사순절과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잘 깨달아 실천합시다.

요약정리 / 사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1. 기도입니다.
2. 성경 묵상입니다.
3. 금식입니다.
4. 회개입니다.
5. 절제입니다.